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인천의꿈*</b> <b>대한민국의미래</b>
		배포일자	2023년 3월 1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당자	• 유산보호팀장 정영희 ☎440-4481 • 담당자 유의동 ☎440-448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중구 답동성당 등 131개 문화재 보수·정비 - 총사업비 121억원 확보,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0억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21억원을 확보해 131개 인천시 소재 문화재를 보수·정비를 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에는 총 28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, 특히 2000년에는 강화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.

### [인천광역시 문화재 현황]

소관기관			유·무형		
합계	국가 문화재	시 문화재	합계	무형류	유형류
281	80	201	281	35	246

[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제공(2023.2.기준)]

올해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▲국가지정문화재 중구 답동성당 등 22개소 보수 54억 원 ▲시지정문화재 남동구 논현포대 등 24개소 정비 30억

원 ▲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 28억 원 ▲ 기타 문화재 방충방염 및 문화재 이정표 정비 사업 9억 원 등이 있다.

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131개소 문화재는 군·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서, 보수·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문화재를 우선해 선정했다.

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지원 보조금을 교부하고,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 보수 등에 필요한 문화재 심의 및 문화재 설계 승인 등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

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문화재도 인간의 생애주기처럼 관리해야 장수 할 수 있다” 며, “문화재의 보수·정비가 매해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문화재청과 군·구 협업을 통해 관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로부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체제도 유지한다.

<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인천답동성당 전경>



※ 출처: 문화재청 홈페이지